

8월 17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1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소비심리'에 제동...5주만에 뒷걸음	<p>소비 심리 악화가 미 증시를 사흘만에 하락세로 돌려놓았음. 이로써 미 증시 주요지수는 5주만에 처음으로 한주를 약세로 마감했음.</p> <p>1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에 비해 76.79포인트(0.82%) 떨어진 9,321.40을 기록했고 S&P500 지수는 8.64포인트(0.85%) 내린 1,004.09로 마감했음. 주간 하락률은 0.6%를 기록했음. 나스닥 지수 역시 23.83포인트(1.19%) 내려선 1,985.52로 장을 마쳐 한주간 0.7% 물러났음. 개장 직후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예상을 뒤엎고 전달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음. 미국 국내총생산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앞으로도 쉽게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경기회복 기대감을 약화시켰음. 7월 산업생산과 설비가동률이 예상보다 호전된 것으로 발표됐지만 이틀간의 상승세에 따른 차익매물을 막지는 못했음. 장초반부터 약세권에서 머문 미 증시 주요 지수는 장 후반 다소 낙폭을 줄이는데 그치며 일제히 하락 마감했음.</p>
유가, 4% 급락	<p>미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과 이로 인한 증시 약세로 국제유가가 4% 급락, 배럴당 67달러대로 내려섰음. 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3.01달러(4.3%) 떨어진 67.51달러를 기록했음. 이로써 WTI는 한주간 배럴당 3.42달러(4.8%) 떨어졌음.</p>
산업생산 증가, 소비심리 위축에 빛바래	<p>미국의 7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9개월만에 증가세인데 전망치(0.4%)보다 증가세가 가팔랐고 지난 6월의 0.4% 감소분을 만회했음. 7월 설비가동률은 68.5%를 기록, 예상을 상회했고 설비가동률은 지난 6월 68%였으며 이달엔 68.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이는 미 정부의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이 자동차 수요를 진작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고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에서 벗어나 공장을 다시 가동했고 고효율 자동차를 살 때 인센티브를 주는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으로 이익을 회복했음.</p>

제목	주요 내용
7월 수출품 가격 소폭 상승..수입품 값은 비스킷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물가는 원화기준으로 전월대비 0.7% 상승. 환율도 소폭 오른데다 특히 농림수산품이 공급감소로 한달 전보다 6.4%나 오르면서 수출품 가격 상승을 주도. 공산품도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강관 등 금속 1차제품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 달러 표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전월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로는 21.0% 하락. 품목별로 보면 과일중에는 배가 공급물량 부족으로 한달 전보다 15.9% 올랐고 오징어 참치 등도 어획량 감소로 올랐음. 또 승용차와 휴대폰, TV 등도 판매촉진을 위한 가격인하로 하락.
다음달 설비투자펀드 2兆 우선 조성	금융위원회는 16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조 4,000 억원, 6,000 억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 오는 9월부터 기업들을 상대로 필요한 투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조성할 1조 4,000 억원 중 8,000 억원은 오는 10월 출범할 정책금융공사가 공급. 지원 방식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직접지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자체 심사를 통해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을 선정, 기업의 우선주·보통주·회사채·전환사채 등을 매입하거나 대출 형식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대출금 비중은 전체 지원액의 50% 미만으로 유지됨.
LG전자, LCD TV 등 4개 제품 유럽 최고상	LG전자는 EISA 어워드에서 풀HD급 LCD TV(SL8000), 블루레이 플레이어(BD390), 홈씨어터 시스템(HB954PB), 아레나폰(LG-KM900) 등이 각 부문 최고상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유럽영상음향협회(EISA) 어워드`는 유럽 19개국의 50개 AV전문지 편집장들이 참여해 선정하는 유럽 전자업계 최고 권위의 상임. 이번 어워드에서는 오디오·홈 씨어터, 포토, 모바일, 친환경 등 64개 부문 수상제품을 선정했음.
롯데관광, 1년만에 `여행업 대장주` 탈환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나투어(039130)는 1.29% 하락해 시가총액도 4,443억원으로 줄었음. 반면 롯데관광개발(032350)은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시가총액 4,600억원을 기록, 하나투어를 앞질렀음. 이는 작년 7월16일 이후 1년여만의 일. 하나투어는 여행업종 주가흐름에 맞춰 여름 성수기 때 오르고 성수기가 끝나가자 최근 조정을 보이고 있음. 반면 롯데관광은 용산 개발 재료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다른 여행업종과 차별화된 주가흐름을 보인 것. 롯데관광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지분 1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